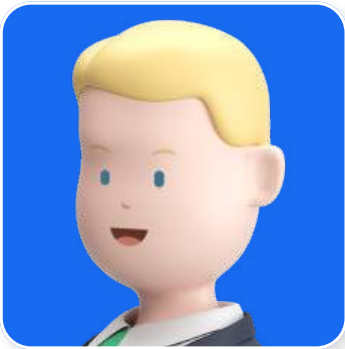


기적을 만드는 교육기부!
교육기부로 기적과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Issue Paper

기적을 만드는 교육기부!

교육기부로 기적과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송 주 연 (화진초등학교 전문상담사)

본 Issue Paper는 2023년 경상관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작성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센터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교육기부!

교육기부로 기적과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기부가 뭐예요?"

"교육에 왜 기부가 붙어 있나요?"

"교육을 어떻게 기부한다는 건가요?"

"교육기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교육하나요?"

교육기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용어를 생소해하며 묻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와 기부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어느 정도 추측은 하고 묻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취업 전까지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282시간가량의 교육기부를 해왔고, 취업 이후에는 교육기부 업무를 맡아 하고 교육기부를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기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지금까지는 교육기부를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역시도 정의조차 잘 모르고 그저 사회봉사의 한 영역으로 재능기부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교육기부

교육기부는 공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산을 조건이나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행위(김민희, 2018)로,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장신호, 2011)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교육기부는 있었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을 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과 산업 육성에 힘을 쓴 이유도 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해야 자주독립이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인 독립을 위해 비영리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 교육기부가 독립이라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재능기부가 시작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재능기부로 교육기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우리가 어색했을 것입니다.

현재 2011년을 기점으로 사회적 운동으로 교육기부는 확산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교육기부를 통해 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추세입니다.

교육기부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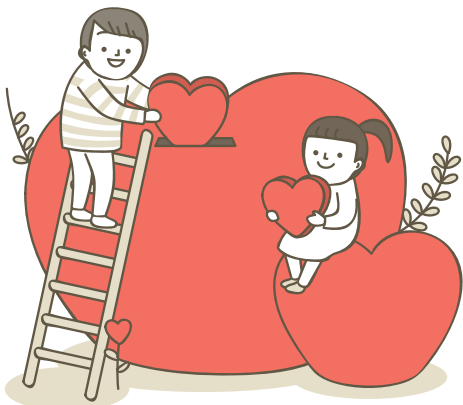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교육기부 업무를 위탁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 사업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교육기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교육기부 활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 역시 교육기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가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문적 지식이 교과서라는 제한된 지면에 담기에는 너무나 방대해졌고, 교과서에 담긴 지식 역시 학문의 발전에 따라 진리가 아님이 드러나기도 한다(이현욱, 2003)는 이유입니다. 정보화 시대인 현 시대에는 다양한 정보가 넘쳐 흐르고 정보와 기술들이 발전하는 속도는 순식간이어서 점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어하며 기존의 교과 교육 이외의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교육이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국내 교육계는 사교육 집중 현상으로 공교육의 위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교육기부는 사회자원을 통한 양질의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또한 사교육이 가질 수 없는 공공성과 교육 기회평등을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도와 같이 역량·인성 위주 평가 도입에 부합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사교육이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0)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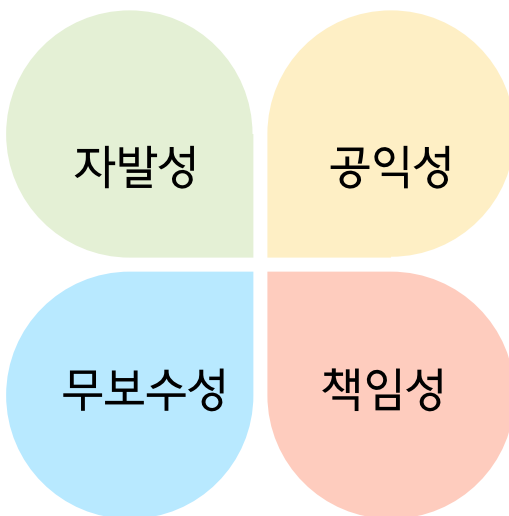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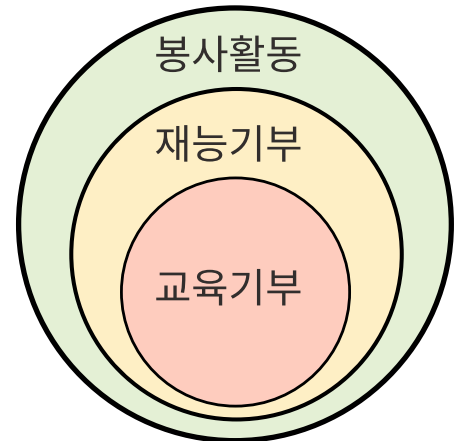
셋째,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사람 한명 한명이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증가해

한 가지 직업만으로 평생을 살 수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필요성을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정부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부족하므로 교육 기부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기부의 핵심 가치 4가지

교육기부는 국내의 '재능기부'를 한 가지 하위영역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며(한국교육개발원,2012) 재능기부는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필요한 곳곳에 공헌하는 개인적, 민간적 차원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체계를 가지고 사회 자원을 교육 활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려 하는것이 교육기부(장윤주, 2016)입니다.



우리는 교육기부를 하기 위해서 교육기부의 4가지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원봉사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익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기부의 핵심 가치 중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누군가가 시켜 동원되어 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하위영역 중 재능기부에 속하는 교육기부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익성 입니다.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고, 참여로 인해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간혹 영리를 위해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홍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무보수성입니다. 경제적 보상과 상관없이 하는 활동인 만큼 보수가 없습니다. 대신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부를 참여하는 우리는 봉사시간을 받기 위해 참여하기보다 무보수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더 크게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무보수라고 해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면 교육기부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교육기부 수혜자가 받아야 할 피해는 클 것입니다. 교육기부를 하는 우리가 값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율이 되지 않게끔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자세와 더불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부에 첫 발을 내딛다

제가 처음 교육기부를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9년 여름이었습니다. 1남 2녀 중 장녀인 저는 동생 2명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를 설명하며 우리 가정에서 가정위탁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족회의를 거쳐 우리 가족은 가정위탁을 실시했고, 그 해 여름 저는 6살짜리 동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가정위탁 동생은 부모님의 이혼과 별거로 인해 방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우리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자기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혀 짧은 소리로 자기 이름을 겨우 말했고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것도 배운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동생과 생활하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을 때쯤, 가정위탁을 관할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교육기부를 권유했습니다.

‘교육기부? 아직 나도 학생인데?’

‘교사 자격도 없고, 기껏 해봐야 중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고2가 해도 되나?’

교육을 받기만 했던 학생이었던 입장에서 교육기부를 제안받았던 저는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연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 돈이 꼭 많아야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갖춘 자격이 있어야만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알고 있고, 먼저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준 적 있지 않아? 그게 재능기부의 첫 시작이야. 네가 먼저 경험했고 배웠던 것을 너보다 어리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재능기부이자 교육기부인 거야. 교육기부는 어려운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답변에 그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저보다 12살이 어리던 그 동생에게 연필 잡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한글과 숫자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는 늦게 시작한 한글 공부였지만 가정위탁 동생은 자기 속도에 맞춰 점차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는 느리지만 멈춰있지 않았고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하며 동화책을 읽고 즐거워했고, 어느새 숫자도 익혀 덧셈 뺄셈을 하며 성취감도 느끼는듯했습니다. 그 옆에서 저 또한 뿌듯함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의 욕구를 발견하게 하는 교육기부

고3이 되어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가정위탁 동생에게 한글 알려주기는 계속이어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정위탁 제도를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동생의 숙제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NGO 단체와 사회복지에 대해 알게 되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직업군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에 대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정말 보람찬 일이구나!’

어린이들을 대하는 것이 좋아서 막연히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해야겠다던 저의 목표도 교육기부 활동을 통한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 ‘유치원 선생님 말고도 아이들에게 내 경험을 전달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이나 희망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며 저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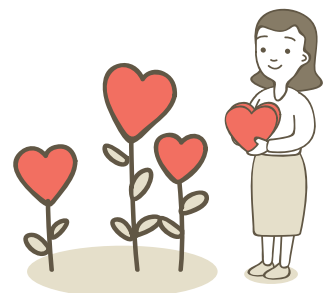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단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한 아이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주었던 정보와 희망으로 그 아이 역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 원하는 바였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말 다양한 연령의 대상들을 접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구나.’

‘나와 같은 경험으로 마음 아팠던 아이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 치유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고, 교직이수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기부 활동은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적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내 욕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알려준 교육기부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부로 다양한 경험을 하다

교육기부 이슈페이퍼 작성과 특강을 제안 받은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정말 오랜만에 VM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저의 봉사 활동 실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육기부를 처음 접했던 순간부터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총 5년이라는 세월 동안 VMS에 등록된 저의 봉사활동 시간은 282시간, 횟수로는 62회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따져보니 5년이란 시간 동안 월 1회 평균 4~5시간씩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봉사 실적을 보니 교육지원으로 등록된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 했던 활동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에 "교육기부가 이런 것이야!"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육기부는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교육기부는 12살 어린 가정위탁 동생의 한글을 익히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교육기부는 제가 가입했던 봉사 동아리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2시간씩 시간을 내 교육기부를 했던 그 활동은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농아인이어서 언어자극을 자녀에게 주지 못해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갈수록 수화가 아닌 구어로 소리 내어 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도 인상 깊었지만, 그 모습을 본 농아인 부모님께서 자신이 가진 장애로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아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어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해 주었던 그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 번째 교육기부는 부산에 위치한 OO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주 1회 아이들에게 최신가요를 수어로 가르쳐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1시간은 이렇게 수어를 알려주고, 1시간은 아이들 간식과 식사를 챙기고 뒷정리까지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매주 한 번 두 시간씩 만나다 보니 한 학기가 훌쩍 흘러있었습니다.

학기의 마무리로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체험 활동을 갈 때에 인솔교사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송주연 () 봉사자님의 봉사 실적

관리센터 울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울산지부) (052-286-1548)

총 봉사횟수 / 총 봉사시간 : 62 회 / 282시간 0분

VMS에 등록된 봉사활동 실적
62 회 / 282 시간 0분

인용서 발급(생략가능)

VMS에 등록된 봉사시간이 총합된 봉사내역은 인용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62	교육지원(학습지도 등)	발급	평가등록
- 봉사일자/ 2011-08-10 - 봉사시간/ 12:00 - 16:00(4시간 0분)			
- 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소년수련관			
- 수료처/ 영과후리캠퍼서			
61	각종행사보조(캠페인,파지회 등)	발급	평가등록
- 봉사일자/ 2011-07-23 - 봉사시간/ 08:00 - 15:00(7시간 0분)			
- 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소년수련관			
- 수료처/ 영과후리캠퍼서			
60	교육지원(학습지도 등)	발급	평가등록
- 봉사일자/ 2010-02-04 - 봉사시간/ 10:00 - 16:00(6시간 0분)			
- 센터/ 덕천종합사회복지관(교육)			
- 수료처/ 덕천종합사회복지관(교육)			
59	각종행사보조(캠페인,파지회 등)	발급	평가등록
- 봉사일자/ 2008-12-31 - 봉사시간/ 09:00 - 17:00(8시간 0분)			
- 센터/ 관동여대부속봉사부			
- 수료처/ 관동여대부속봉사부			

아이들과 한 학기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그렇게 약속된 한 학기의 교육기부가 끝나고 겨울방학에는 장애 아동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캠프에 1:1 멘토가 되어 활동 보조와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학습들을 함께 지원하는 스텝의 역할도 했습니다.

비장애 아동들을 만날 때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스텝으로 활동했다 보니 단순 교육기부자의 역할을 넘어 **교육기부 공급자***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일도 해보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방학을 맞이하여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중·고등학생에게 자원봉사교육도 해보고, 노인대학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특강,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이나 심리 상담



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쉼터로 연계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도 했었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다름'은 '틀림'과 같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교육도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에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전공 대표로 참가해 심리 상담학과 설명과 더불어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교육기부도 했고, 같은 과 학우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대학 근처에 위치한 중학교에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한 학기 동안 매달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기부를 받았던 **교육기부 수혜자***들은 교육기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교육기부를 제공한 저 역시도 교육기부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정말 작은 나라 한국에서 티도 안 나는 한 명의 대학생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역시 교육기부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 교육기부 공급자 :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개인·기업·공공기관·단체·대학생 등이 해당.
- 교육기부 수혜자 : 교육기부를 받는 사람으로서 학생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속한 기관이 해당.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박람회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다.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계기, 교육기부!

교육기부는 특별한 자격 없이도 할 수 있는 재능기부의 하나라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교육기부는 자신이 배워왔던 전공을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기부의 이러한 특성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전공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위해 교육기부 거점 지원센터와 MOU를 맺어 교육기부 공급자를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전문상담교사 교생실습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과 쉼터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고, 재학 중이던 대학교 내 학생심리상담지원센터에서 Peer counselor로 활동하며 또래 학우들에게도 상담을 제공하며 전공의 역량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 교육기부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부를 통해 자아탐색과 더불어 자신이 배우고 익혀온 전문 기술을 직접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자신의 전공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관리자를 대하는 태도도 교육기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현장에서 보고 익힐 수 있는 시간과 현장실습의 시간이었다 보니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장 큰 경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 생각에 그치지 않았고,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녹여 작성했었습니다. 이를 본 면접관들이 저에게 관련 질문이 많이 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은 저를 채용했던 관리자께서도 인정하는 저의 가장 큰 능력이자 경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부의 경험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교육기부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을 대했던 경험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그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빠르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다시 만난 교육기부

저는 전문상담사로서 중·고등학교에서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발령받아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화진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934년 방어진보통공립학교로 설립되어 1972년 화진국민학교로 개칭 후 지금의 화진초등학교로 불리게 된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47개 학급을 가지고 있으며 10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우리학교는 인근의 초등학교들에 비해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아 규모가 큰 학교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큰 학교에서는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10년 넘게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초등학교 운영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은 교육기부를 통해 대학 시절 만났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만난 경험이 없었고, 그 경험은 저에게 10여 년이 흐른 후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어색한 것 투성이었던 초등학교에서의 첫 근무에서 반가운 것은 교육기부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화진초등학교는 이미 교육기부를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였던 겁니다. 2021년 교육기부 활용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 200만 원을 받아 교육기부 활용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기부를 해왔던 제가 다시 교육기부를 만나게 되니 새삼 반가운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기부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역 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후 활동과 울산대 동남권 과학창의진흥센터의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한 신체놀이 활동, 건강한 영양 수업, 시립미술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의 제공으로 독서지원 프로그램 등등 정말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교육 회복이 필요한 학반에 독서와 심리 상담을 융합시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회복이 필요한 학반에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연계시키기도 했습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 업무 담당자가 되다

우여곡절 속에 시간은 흘러 1년이 흘렀고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교육 운영 시스템에 적응을 해 나갔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 상담사는 저 혼자였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 내 연관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상담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그걸로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023 경상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로부터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신청받는다라는 공문을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창의과학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모델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다양한 자원을 초·중등학교 현장에 투입해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모델 육성과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교육기부 확산의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최소 10차시 이상(2020년 기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진심이 통했는지 8월 14일 2023 경상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로부터 우리학교가 교육기부 모델학교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 9월 현판 증정과 함께 각종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렇게 저는 2023학년도 교육기부 모델학교 업무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학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학교만의 특성이 담긴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고

민을 하며 학교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인성 함양,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부 모델학교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저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요조사서에 인성 함양과 심리·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수요조사서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교육기부 모델학교 프로그램

2022년과 2023년 상반기 동안 위(Wee)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혼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도움을 받아보고자 했으며, 우리 학교의 교육기부 모델은 인성 함양과 심리·정서 집중 지원 모델학교로 만들어보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많은 시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만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꾸준히 있고 접수되는 사안 건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기도 했습니다.

고찰 결과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알려주는 정보 전달식의 기존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런 교육의 부작용으로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서로에게 다가가며 소통하기보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더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로에게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건 학교폭력이야!"라며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경고하며 서로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저 아쉬움만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로를 배려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 마!,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라는 부정 언어가 담긴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라는 긍정의 언어가 담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 볼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우리 학교 아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학교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발달과정상 초등 저학년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감정 단어로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세밀한 감정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감정 단어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친다", "짜증 난다.", "화난다", "슬프다", "좋다" 정도의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과잉스럽다 할 정도로 과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짜증 나고 화가 나는 상황과 감정 속에 숨어있는 세부적인 감정과 욕구들이 빠져있다는 것이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감정과 자신의 욕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 만큼이나 '우리'라는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함께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습과 혼자서 해야 하는 생활들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에게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저는 "배려"를 키워드로 한 인성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고찰을 통해 교육기부 모델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서에는 우리 학교의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올바르게 건강한 소통을 위해 아버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 프로그램 준비

교육기부 모델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필요했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듣게 되었습니다.

경상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장님과 회의도 하고, 담당 연구원 선생님과 정말 자주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강사를 섭외하는 것 또한 했어야 했습니다. 저 혼자서라면 어려웠을 수 있는 일을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와 함께 하니 강사 섭외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강사 섭외를 끝내 2023년 11월에 본격적으로 교육기부 모델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교는 부모교육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감정 아로마테라피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3회, 인성 함양을 위한 "배려" 수업을 10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감정 아로마 테라피가 만나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교육기부 모델학교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감정 아로마 테라피를 접목한 교육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간 의무로 실시되어야 하는 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 방법들이 있지만, 방송을 통한 일방적 전달식 교육이 아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서로 배려할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으로 우리 학교만의 모델학교 프로그램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감정 아로마 테라피 융합 교육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해양산업교육과 조진호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조진호 교수님께서서는 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학생과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해 실시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해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폭력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어른과의 만남이 생소해서 그런지 신기해하며 대학교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고 조진호 교수님과의 수업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조진호 교수님과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저는 교수님의 진심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급당 2시간씩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수님이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학급에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을 그 짧은 2시간 안에 파악을 한 뒤 저와 담임교사에게 그 학생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고, 그 학생 역시 교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운동장에서 교수님이 차를 타고 교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교육기부를 해 주신 조진호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에 아이들이 응답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2시간에 이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감정 아로마 테라피가 이어졌습니다. 감정 아로마 테라피는 마음 향기 심리상담센터 박근영 센터장님이 직접 교육해 주셨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교육을 교육과정 안에서도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로마'라는 매체를 이용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로마와 친해지도록 아로마가 무엇인지, 아로마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오렌지 오일을 손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트려 각자 맡아보고, 호흡하게 하는 순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도 아로마 향을 맡아보고 호흡하게 하니 집중하며 아로마로 소통하는 것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아로마를 향을 맡아 그중에 제일 좋게 느껴진 향을 하나 골라보고 좋게 느껴진 이유도 찾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니 아이들이 수업 중간중간 "OO 이가 2번 향기가 더 좋았다고 했는데 저런 마음이었구나. 와 신기하다."라는 반응부터 "와! 저 어제 잠 설쳤는데 딱 맞아요!"라며 자신의 컨디션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적극 표현하는 반응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신이 좋게 느꼈던 향을 충분히 느끼면서 자신만의 감정 오일 향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나와 같은 향을 고르는 것에 공통점을 느끼고 대화를 걸게 된 아이도 있었고,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고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친구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또 다른 향기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아로마를 매체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친구들의 감정이나 컨디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더 나아가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며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성 함양 교육으로 "배려" 왕 되어보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감정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여도 아쉬운 부분은 "배려"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기 바라며 "배려"를 주제로 한 교육을 교육기부 모델학교 프로그램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려면 배려해야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배려"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친구나 선생님은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배려를 교육해야 한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기부해주는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 근무지였던 중학교에서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품성개발 교육을 지원받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전에 교육을 지원받았던 울산남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천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남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할 구역이 달라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상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도 인성 함양 교육인 "배려"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는 시범적으로 전체 학년에서 10개 학급만 선정하여 6학년 1학급, 5학년 2학급, 4학년 1학급, 3학년 2학급, 2학년 4학급에 2시간씩 배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배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학년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울동으로,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들기 활동으로 준비된 배려 교육은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배려 받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위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배려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환경도 될 수 있네요."

"선생님, 제가 만들기를 잘 하는데 1등으로 만들어서 만들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줘서 배려 왕 되기를 실천했어요."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어보게 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더니 그 실천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려 왕관을 만들어 너도나도 써보더니 실제 친구들에게 서로를 위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풀 빌려줄까?", "나 다 완성했는데, 이거 자르는 것 좀 도와줄까?"라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종잇조각들을 쓸어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기부에는 감동을 실천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아버지를 위한 교육기부

요즘은 가정적인 아버지가 많은 시대입니다만 아직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점점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고, 짜증이 늘어나는 아이들을 대할 때면 서운함이 먼저 올라와 괜스레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학부모님의 고민을 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에 집중하고 친구들과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로 고민하는 부모님에게도 전문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보통 직장을 다니는 아버지들은 참여하기 힘든 시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평일 2시~4시에 시작되는 교육들은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은 참여하기가 힘든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해 참가자를 모집해 보았습니다. 강사님도 역시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자녀와 소통을 원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표로 한 20명의 아버님을 모집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0명의 신청은 정말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었을 텐데도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아버님들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 교육은 바른 마음 성장연구소 수석 강사 조영아 선생님이 맡아주셔서 "고민 하Go, 나누Go, 연결 하Go, 함께 하는 나는 00한 아빠다"를 주제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따뜻하고 건강한 소통으로 자녀와 친해지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 엄마가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오게 되었는데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오기 귀찮았는데 참고 오니까 그래도 무서운 아빠가 아닌 다정 다감한 아빠가 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네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아빠가 돼보겠습니다."라고 마치고 소감을 나눠주신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엄하게만 대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 부모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원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란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모라는 위치에서 힘으로 누르고 있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 역시 다시 알게 되었다며 중간중간 공감도 하고 자기반성도 하며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아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아버님들도 자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다섯 글자로 소감을 표현한 우리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길 잘 했다, 실천해 보자, 지금 처럼만, 다정한 아빠, 소통해 볼게."를 마지막으로 아버지 대상 수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와 보완해야 할 점

앞서 저의 교육기부 경험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교육기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봉사나 나눔에 대한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많은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에서도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진짜 교육기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육기부는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만, 아주 가끔 교육기부를 기업이나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기부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 감동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이득 또는 한 단체의 이득을 위해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로 선정된 만큼 담당자는 기존에 홍보되고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만의 특색이 담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는 교육기부 활용 우수학교와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인 만큼 업무 담당자는 우리 학교 특성에 맞도록 기존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융합하고 활용해 특징이 드러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학교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해 활용하기 위해 모델학교라는 시스템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 업무 담당자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 연구원과 함께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융합도 해보고 또 새로 개발하며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용하고 있던 사전 사후 설문지의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답하기에 문항 개수가 많았고, 내용 또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연령의 아동에게는 더욱 답변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초등학생의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사전 사후 설문지 문항이 제작되어야 하며, 사후 참가자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는가에 대한 소감을 담을 수 있는 문항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교육기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육기부 수혜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혜자들의 개인정보, 재산 정보, 초상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재산 정보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우리는 되도록 대상자의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여나 사진을 찍더라도 허락을 구하고 찍거나 본인만 나오게 하면 되며, 사진을 공유할 시에는 수혜자 얼굴을 가려주어야 합니다. 수혜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정보와 직장 정보, 학교 정보 등등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유출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모두가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자와 이중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는 지키지 않아 종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상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만, 교육기부 수혜자가 요구하는 것에 거절하지 못해 교육기부 수혜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기부 공급자로서 수혜자에게 관심을 주는 것을 수혜자는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만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중관계 금지 윤리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또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교육기부 공급자라고 해서 '갑'이 되어서도, '을'이 되어서도 안되는 평등함과 책임감입니다. 교육기부 공급자는 어느 기관의 소모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로 의해 연계가 되긴 하지만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움직이는 '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이 되라는 것 역시 아닙니다. 교육기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교육기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교육기부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기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약속된 교육기부 수혜자들과의 시간을 지켜주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어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

Impossible은 '불가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반대의 뜻이 됩니다. 바로 I 뒤에 '을 찍으면 I'm possible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불가능함에서 '나는 가능하다'의 긍정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부,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점 하나를 찍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기부 자체가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점 하나를 찍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휩쓸리지 않고 수혜자의 진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기부 수혜자를 만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의 대상자만 골라서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기부자가 수혜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수혜자 역시 '교육기부 공급자가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결국 교육기부 공급자로서 수혜자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부 활동 안에서만 국한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대인관계를 맺게 될 때,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으로 상대방의 진가를 놓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는 나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성장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버리고 가야할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를 교육심리학에서는 미국의 로젠탈 박사가 '한 사람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그에 부응한다'라는 실험을 하여 "로젠탈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로젠탈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를 왜 언급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는 교육기부를 할 때 대상자에게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긍정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교육기부자로서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사람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으니 기대해 주고 믿어준다면 우리의 기대를 받은 대상은 그 믿음과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로젠탈 실험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교육기부 활동 안에서 수혜자에게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면 수혜자들은 이에 부응할 겁니다.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상담심리학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기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을 자성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성공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할 수 있으려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해본 적 없는데, 나는 실패할 거야. 아, 이번 생 망했다.'라고들 쉽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고 믿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타인을 위해 교육기부를 하기 이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기부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교육기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육기부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교육기부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하나씩 살펴보면 교육기부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교육기부는 연애와 같은 것입니다. 연애가 꼭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한 번 시작한다고 해서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와 맞지 않다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 시간을 들여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연애도 교육기부도 나로 인해 상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상대의 영향으로 나 역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연애도 하면 할수록 스킬이 생기고 늘듯이 교육기부 역시 할수록 그 기술은 늘 수 있습니다. 또 연애와 교육기부 모두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같이 교육기부는 서로를 통해 배울 수도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서로 사람으로 만나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교육기부로 함께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또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서도 순간순간 기적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변화할 기적들과의 만남을 고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육기부를 통한 기적과 감동을 나눌 수 있어 저에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김민희(2018). 교육기부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8(5), 653-660.
- 장신호(2011). 교육기부의 개념, 운영사례, 해결과제 탐색(현안보고OR2-11-2-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경상권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